

무더운 여름 **한우** 보양식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지요?

여름철 건강 보양식 우리 한우를 통 크게 쏘겠습니다.

한우 드시고 올여름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즐기세요!

한우가
시원~하게 쏩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이벤트

7월 전국 한우소비촉진행사 대축제

» 행사기간

2013년 7월 4일(목) ~ 7월 31일(수)

품목별 최대
60%
OFF
할인

» 판매처

- | | |
|-----------------------|----------------------|
| - 농·축협(7.4~21) | - 이상춘농업회사법인(7.19~28) |
| - 홈플러스(7.4~17/7. 27) | - 화산한우영농조합(7.19~29) |
| - 롯데백화점(7.5~14) | - 여주시한우협회직판장(7.9~31) |
| - 돈우(7.6~20) | - 대숲포크(7.21~30) |
| - 소야영농조합법인(7.8~17) | - 롯데슈퍼(7.24~30) |
| - 제주청정축산마트2호(7.10~14) | - 롯데마트(7.25~7.31) |
| - GS리테일(7.12~21) | - 제주청정축산마트(7.24~28) |
| - 서원유통(7.15~21) | |

» 대표할인품목

한우 전 부위 최대 60%할인

※ 판매처별 행사기간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참고

한우지킴이
이승기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3년 7월호

기획특집 1

- ❶ FTA 피해보전 국회토론회
- ❷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논란

기획특집 2

한·중 FTA 중단 결의대회

포커스

한우고기 예찬

진단

유통업체 담당자들이 본 한우판매 활성화 전략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CONTENTS

한우자조금 2013. 07



기획특집 1 03-07

- ❶ FTA 피해보전 국회토론회
- ❷ FTA 피해보전작불금 신청 논란

기획특집 2 08

한·중 FTA 중단 결의대회

Information 09-11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포커스 12-13

한우 마블링 오해와 진실-주선태 경상대 교수

진단 14-15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듣는 한우판매 활성화 전략

현장르포 16-18

2013 한우농가의 현주소 - 사료비절감방안 모색

KREI 축산관측 19

6~8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여름철 한우 사양관리

Bravo! Life 22

장기요양서비스

애독자코너 & 전문점소개 23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9권 통권 제93호 발행일 2013년 7월 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기획총무부, 홍보마케팅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수입기여도 폐기 · 폐업지원 현실성있게 적용 폐업지원금 순수입액 기준으로 산출해야 사육에 필수적인 ‘축사시설’도 합리적인 보상을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 김영록, 김춘진) 주최, 전 국한우협회 주관, 한우자조금의 후원으로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를 믿고 국회를 믿고 열심히 한우를 키우며 기다려온 절박한 농가의 심정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현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축산부문에서 첫 폐업지원 대상이 된 한우농가의 높은 관심뿐만 아니라 최규성 위원장, 김춘진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체결 이후 쇠고기 수입 증가로 한우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이 매우 크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한우·송아지 FTA피해보전 직불금이 처음 발표되는 만큼 부족한 점이 많다”며 “피해보전정책 마련 시 피해 당사자인 축산단체가 참석해 피해 대책을 논의하여 일선 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늘려도 모자란데 오히려 줄었다”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으며, 최규성 위원장은 “한우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사료값 안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특별법 15년 이상 연장해야

(조재환 부산대 농업경제학과)

부산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재환 교수는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 협정 발효로 2026년의 상황은 현재보다 더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2026년 한우 사육마리수는 248만마리, 송아지사육마리수는 77만마리로 위축되고, 한우도매가격은 1만1,700원/kg으로 현재보다 1,000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17.8kg으로 늘어나지만 쇠고기 국내 자급률은 24.6%에 불과해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고기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현재 조성된 직불금 1.3조원은 한우산업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행령에 의하면 비육우 마리당 피해보전직불금은 최대 33만 1,000원 이내에서 결정되고 이마저도 2016년 이전에 종료되며, 피해보전직불금 총액은 878~7,658 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인 순수익액은 가격 변동에 의해 매우 불안정한 지수로 한우 번식우의 경우 순수익은 2008년부터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어 계수 산정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며 “한우비육농가의 경우 피해보전직불시 적정 기준가격을 고정하고, 폐업지원 시 조수입 기준·고정 순수익률 적용 방법으로 수정, FTA협정 이행 중기부터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로 인해 하락된 가격만 인정 한우 24.4%, 송아지 12.9% 불과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주제 발표

토론회에 앞서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농림부 안용덕 농업정책과장이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안 과장은 FTA 직불금 보전대상은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원인으로 국내공급증가 등 기타 요인에 의한 가격 하락은 보전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따라서 FTA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부분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계수를 변경하여 적용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의 영향은 한우가 24.4%이고 송아지가 12.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해 농가 직불금 신청과 지자체 현지조사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폐업지원은 농가신청(6~8월), 폐업 확인(10~11월)후 연말까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제도운용의 첫 사례인 점을 감안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FTA 이전 가격으로 고정 가격 설정 실제 피해농가 기준으로 지원해야

지정 토론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는 “가격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생산의 능동성을 확보하고 유통혁신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증가시켜 가격안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KREI모형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산출가격이 현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며 “올림픽기준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기준에서 정상이윤보상 가격으로 바꾸고, 한우가격 폭락 시 심리적인 영향과 요인 등을 고려하여 수입기여도가 폭락하는 현실에 비취 모델 교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총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물가인상이 고려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 당장 한우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보다 10년 후에 닥칠 한우산업 도산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여 직불금 100%로 5년간 지급한 뒤에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한 피해보전직불금이 되도록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충완 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은 “FTA협정 체결 이후 17만 여 한우농가가 14만여농가로 줄었다”며 “비육우든 암소든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데다 사료값마저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 있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피해를 본 농민들에

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는 폐기하고 FTA 발효전 고정기준가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예산의 틀에 맞춰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피해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협동조합연합회 김인필 조합장은 “직불금산정단계에서 당사자인 축산업 종사자를 배제하고 정책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한우개량과 이력추적 가능한 한우등록, 철저한 수급조절로 경쟁력을 키워서 농업구조 변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우리한우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양평축협 윤철수 조합장은 “한·미, 한·EU FTA 농업피해액 가운데 축산부문 피해액 비중이 각각 60%와 93%로 FTA최대 피해분야가 축산업”이라며 “어업인들이 어업을 포기할 때는 생계수단이 되는 어선 값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축산 또한 폐업 시 축사시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폐업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㉞



〈표〉 2013년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조사결과

FTA	총수입량(톤)			대미 수입량(톤)			평균가격(천원)			
	기준	2012년	여부	기준	2012년	여부	구분	기준	2012년	여부
미국	207,408	239,780	충족	54,555	83,813	충족	한우	4,725	4,664	충족
							송아지(한우)	2,011	1,517	충족

수입기여도 반영은 현행 법령 상 불가능

김영록 의원, 수입기여도 반영 불가능 법률검토 묵살 밝혀

지난 6월 24일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은 농식품부가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산정 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직불금 지급규모를 1,700억원이나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수입기여도 24.4%, 12.9%를 반영해 한우 마리당 1만 3,545원, 한우송아지는 5만 7,343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미 피해보전직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영 시 농민들의 소송이 우려된다는 법률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 시에는 반대로 법률해석 결과 수입기여도 반영이 설득력 있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여도 반영은 법령 위반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 반영 가능여부에 대해 법제처, 정부법무공단, 민간 법무법인 APEX에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농식품부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

했고, 정부법무공단은 수입기여도 반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법무법인 APEX은 ‘FTA지원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보전직불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수입기여도를

고려해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조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경우 농가들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1월 22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유권해석 법률자문 결과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표1>과 같이 보고하여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표 1>

- » 법제처('12.9) : 법리적 문제에 앞서 정책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국내외 요인을 고려한 정책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
- » 정부법무공단('12.12) : 동 문제는 법령의 문리적 해석 문제이기 보다는 정책 판단의 문제로 보임.
- » 법무법인 APEX('12.12) : 조정계수 산출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점, 조정계수 결정은 장관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음



피해보전직불금 2,000억에서 300억으로 축소 수입기여도 미반영 시 한우 5만5,000원 송아지 44만원으로 직불금 증액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과정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FTA 수입증가가 미친 영향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산출했다. 법에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한우 24.4%, 한우송아지는 12.9%로 적용해

반영한 결과 한우 1마리당 13,545원, 한우송아지는 57,34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한우농가들이 실제로 받아야 할 피해보전직불금의 1/4도 안되고, 송아지의 경우 1/8만 받도록 한 것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농가들이 받게되는 직불금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5,512원, 한우송아지는 44만4,519원이다.

〈표 2〉 한우 및 한우송아지 직불금 지급 추정액

구분	지급단가(원/마리)		전체 직불금	
	수입기여도 미반영시	수입기여도 반영시	수입기여도 미반영시	수입기여도 반영시
한우	55,512	13,545	513억39백만원	125억27백만원
송아지	444,519	57,343	1,501억82백만원	193억73백만원
계			2,017억21백만원	319억원

농식품부, 수입기여도 반영은 적절했다 한우협회, 실질가격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수입기여도 논란과 관련, 지난 6월 26일 개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요약정리해서 소개하는 가운데 APEX의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요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FTA지원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피해보전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만큼 계산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입기여도의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우협회도 법적대응 수순에 들어갔다. 한

우협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는 정부가 돈을 안주려고 편법으로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에 넣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의뢰한 상황이며,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보전직불의 법적 취지는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피해를 보전해주자고 만든 것인 만큼 수입기여도를 폐지하고 현재의 화폐가치가 적용된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중 FTA 중단! 6차협상 규탄! 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

우리나라 농림축산업 피해의 ‘쓰나미’로 불리는 한·중 FTA(자유 무역협정)를 반대하는 1만 여 농축산업인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한·중 FTA 6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 울려 퍼졌다.

농림축산업 피해 ‘쓰나미’

전국한우협회 회원농가를 비롯해 21개 농민단체 등 1만 여 농축산인들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한·중 FTA중단! 6차협상 규탄! 전국농수축산인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집회를 통해 한·중 FTA가 타결될 시 중국의 대다수의 농축수산물들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농축산업 생산활동 위축과 농어촌 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날인 지난 2일,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



를 본 한우산업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해 피해보전을 하지 않는 와중에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막강한 후폭풍으로 모든 농축산업을 집어삼킬 수 있다”며 한·중 FTA 중단을 촉구했다.

오후에는 벡스코 집회장에서 한·중 FTA 6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해운대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해운대역 부근에 도착한 농축산인들은 협상장까지 거리행진을 하기 위해 나섰지만 경찰들이 2중·3중의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진입이 막혔다. 약 1시간 남짓 대치를 한 농축산인들은 해운대역에서 정리집회 후 자진해산했다.

한우산업 희생대책 마련 성토

둘째 날인 지난 3일에는 한우협회 거창군지부 200여명의 농가를 포함, 경남도지회 전 지부 농가들이 집회에 참여한 가운데 이회대 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한·중 FTA는 축산업의 사형선고”라며 “한우산업의 희생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이 후 집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협상장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한·중 FTA의 불합리함을 강력히 표현했으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협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3일간의 집회를 마쳤다. ㉞

전북한우산학협력단, 미경산한우 품평회

미경산 암소 브랜드화...소비 돌파구 모색
정영길 농가의 26개월령 '1등'...거세우 비해 우수한 성적

블라인드 테스트서 “맛있다” 고급육 가치 확인

한우사육두수는 매년 증가됐지만 경제불황에 따라 소비가 둔화되자 한우산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암소 감축사업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하락하고 있는 소값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북은 새끼를 한번도 낳지 않는 암소를 브랜드화한 '미경산 암소' 브랜드를 출시해 지난 6월 13일 미경산한우 품평회를 개최했다.

전북한우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국 최대 암소 소비시장에 위치한 김해축산물공판장에서 열렸다.

이번 품평회는 전북의 단풍미인한우, 전북한우협동조합, 완주한우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총 24마리의 미경산우가 출품했다. 이날 출품한 24마리의 품질등급은 중 1⁺⁺등급이 10마리, 1⁺등급 6마리, 1등급과 2등급이 각각 4마리였다.

특히 1등을 차지한 완주군 정영길 농가의 26개월령 미경산우는 도체중 399kg, 등심단면적 138cm², 육량지수가 73.52로 나타나 거세우에 비해서도 우수

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최종경매 시 kg당 31,590원에 낙찰돼 총 1,260여만원에 경매됐다. 아울러 이날 품질평가대회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또한 품평회와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도축과 숙성을 시킨 경산우와 미경산우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도 진행해 미경산우의 고급육으로서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테스트에 참석한 농가와 소비자들은 대부분 미경산우가 맛있다고 답변해 미경산우의 발전가능성을 보였다. 이날 품평회에서 강성기 위원장은 “이번 품평회를 계기로 미경산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소비시장의 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와 한우자조금, 전북한우산학협력단은 미경산우 품질평가대회를 계기로 향후 미경산우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번 대회 내용 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며, 미경산우 발전 및 유통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



전국의 이·통장 ‘한우 살리기’ 나선다

한우자조금-전국 이·통장연합회, 한우사랑 MOU 체결

우돈·사태 소비 적극 권장...한우사랑 캠페인 전개

한우소비를 촉진하고 실의에 빠진 한우농가를 돕고자 전국 이·통장연합회,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가 뜻을 모았다. 한우자조금은 전국 10만 이·통장의 힘을 빌려 침체되어 한우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우협회와 전국 이·통장연합회(회장 이종규)와 ‘한우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1일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한우자조금과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한우협회는 전국 이·통장 회원들이 소속돼 있는 각 마을의 기업, 학교, 병원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우돈과 사태 소비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인식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이종규 회장은 “현재 산발적으로 각 지역마다 벌어지는 한우 축제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형태가 많다”며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는 ‘한우 브랜드 어워드’ 행사 및 대규모 한우박람회를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강성기 위원장은 “최일선에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10만 이·통장들과 한우사랑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한우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께 좋은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와 전국 이·통장연합회는 9개 광역시·도 한우브랜드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취합해 한우박람회 개최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기로 했다. ㉾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한우 적극 홍보

제1회 대한민국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개최

‘제1회 대한민국 친환경축산 페스티벌’이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건강한 가축·안전한 축산물·행복한 식탁’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 축산업의 활성화 및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한우홍보부스를 운영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한우고기를

를 홍보하며 한우 시식회, 토크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소비촉진을 유도했다. ㉿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형유통업체와 함께하는 한우홍보행사 진행

한우자조금은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식회 및 이벤트를 통해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15일과 16일은 홈플러스(4개점)에서, 21일부터 23일은 농협(4개점)에서, 7월 5일부터 7일은 농협(1개점), 롯데마트(3개점)에서 한우불고기 및 등심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한우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즉석 이벤트를 펼쳤다. ☺



‘한우라면 미모백배’

온라인 매체통해 한우 웰빙부위와 사골 홍보



한우자조금은 지난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등 6개사를 통해 ‘한우라면 미모백배’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 여름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 웰빙부위 및 사골부위를 알리고, 한우 퀴즈를 통해 관심을 유도했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는 한우웰빙세트를, 2등 15명에게는 한우사골세트를 증정했다. ☺

국회의원식당, 한우만 사용

국회사무처, 소비촉진 동참...상징적 의미 커

국회사무처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국회의원식당에서 한우를 사용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19일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7월 1일부터 본청 및 의원회관 국회의원식당에서 한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3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정진석 국무총리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고충해결을 위해 국회 내 식당들이 한우 사용을 해줄 것을 적극 건의한바 있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국회 사무처 내 후생복지 담당자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국회 내 식당의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국회사무처의 결정은 이러한 윤명희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일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윤명희 의원은 “이를 계기로 우리 농축수산물이 국회 내 다른 식당 뿐 아니라 전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까지 확대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한우고기로 지키는 아이들의 체성장

주선태 교수(경상대 축산학과, 필명 : 필로)



※ 이 기고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작한 '한우고기 예찬' 중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연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한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 발육엔 양질 단백질 필수

아이들이 성장기가 끝나기 전에 키 성장에 필수적인 4대 영양소, 즉 단백질, 칼슘, 아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은 뼈를 자라게 하는데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과 미네랄을 더 쉽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과 혈액의 재료가 되고 뼈를 지지하는 인대의 구성성분이다.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필로가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에 한우고기가 좋다고 하는 근거는 역시 한우고기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단백질에 있다. 인간의 몸은 필수아미노산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 뼈, 내장, 피부, 털, 이빨 등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창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야 하는 성장기에는 필수아미노산의 조성이 우수한 한우고기와 같은 식품의 섭취가 꼭 필요하다. 오히려 아이들을 뚱뚱이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탄수화물과 지방, 특히 트랜스지방이다.

특히 성장장애는 단백질, 철분, 칼슘, 아연 중 하

나라도 섭취가 부족하면 나타난다. 그러므로 키를 키우고 체격을 좋게 하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편식 없는 균형 잡힌 식사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동물성 단백질 필수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청소년과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필요한 어린아이의 경우는 양질의 고급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한 한우고기를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한우고기의 단백질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과하지 않다. 한우고기의 단백질은 영양학적으로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에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우리 체내에는 약 10만종의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다. 몸의 골격을 만드는 구조단백질, 근육의 탄력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수축단백질, 호르몬이나 효소 또는 혈류를 따라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단백질, 면역의 역할에 필수적인 항체나 보체의 방어단백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현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혈액, 호르몬, 효소, 항체 등 이 모든 단백질들이 다 동물성 단백질들이다.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는 소리다.

한우고기, 청소년 집중력 향상

한우고기의 단백질은 각종 조리에도 손실되지 않으며 체내 흡수율과 이용률이 매우 좋다. 필로가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한우고기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의 균형이 한우고기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체내 화학반응에 쉽게 이용되지 못한다. 즉, 체내에서 꼭 필요한 효소나 면역반응 또는 호르몬의 합성 등에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어 오줌으로 배설되어 버린다. 이때 만약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한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축적된다. 하지만 한우고기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균형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소화흡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서 단백질로서의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우고기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하는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빠른 피로회복을 통한 집중력 향상을 위한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한우고기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신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턴오버(turn over, 대사회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체내의 모든 단백질들은 각각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다한 단백질은 분해되어 사라지고 새롭게 생성된 단백질로 교체된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턴오버라고 하는데, 턴오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턴오버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인은 하루에 체중 kg당 약 1.08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성장기의 신체는 턴오버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이라는 생화학적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턴오버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의 보충에 있어서도 한우고기의 단백질은 콩, 쌀, 밀가루의 단백질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용된다. 한우고기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인체의 단백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

육식의 반란 - 마블링의 음모

오해와 진실



Q. 현대인들의 성인병이 동물성 단백질 과다섭취에서 비롯된다고 하는게 한우고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게 사실인가?



A.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이 너무 과장되게, 너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육류를 통해, 특히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한우고기를 통해 섭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인스턴트식품이나 가공식품을 통한 저급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문제다.

Q. 채식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이로운가?

A.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면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필수아미노산의 조성이 우수한 한우고기와 같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완벽한 면역시스템의 구축은 영양에 편중이 생기지 않는 식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즉, 채식이라는 지독한 편식보다는 주기적으로 한우고기를 먹는 잡식의 균형식이 완벽한 면역시스템 구축에 좋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듣는 한우판매 활성화 전략

명절이전 소비·명절상품 개발이 하반기 판매핵심

부위별 맞춤 소비촉진 행사…계절별 홍보도 연계

유통단계 최소화 저가 판매…이달부터 대대적 할인

사육마릿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우 가격은 좀체 오르지 않으며 농가는 물론 대형유통업체에서도 한우 소비침체는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산물 소비부진에 따른 전체 한우 소비시장 침체는 장기적으로 올 한해 한우소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가 탄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추석은 물

론 하반기 소비시장까지 경색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도 이러한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우자조금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를 통해 이번 달부터 대규모 할인판매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한우 담당 바이어들로부터 한우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들어본다.

특정부위 소비적체 해소…부위별 판매대책 마련 적체부위의 색다른 판매대책 모색

emart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정 부위에 대한 소비가 적체돼선 안 된다. 마리당 도축·유통을 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한곳에서 소비가 미진해 재고가 쌓인다면 도축이 어려워져 다른 부위의 소비마저 부진해진다. 최근에는 사골, 곰거리 등 부산물의 적체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비촉진과 활성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마트에서는 지난달까지 뼈 등 부산물 소비촉진에 매진했다. 균형있는 소비를 통해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다. 특히 계절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한우 소비수요에 맞춰 부위별 판매 대책을 마련해 특정 부위에 대한 소비가 미진해지는 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전반적으로 한우 소비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매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특정 부위에 대한 소비가 위축돼 전체 소비가 침체된 것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낮아진 까닭이다.

홍성진 이마트 축산바이어



특히 올해는 대목인 추석이 평년보다 빨라 추석 이전에 부산물 등을 얼마나 소비시키느냐가 추석이후 판매를 가름하는 변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이전의 소비와 명절 상품개발이 올 하반기 판매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마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은 타진하기 위해서 부산물이나 국거리 등 여름철에 소비가 부진한 부위에 대한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물과 관련해서는 냉동이 아닌 냉장으로 유통, 가격도 낮추고 보다 신선한 먹거리를 빠르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소비자는 물론 판매점에서의 반응도 우호적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에 판매가 부진한 국거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업진살 등의 부위를 냉동해 구이용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국거리가 구이용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 같은 상품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비가 가능한 유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형유통업체 지원→농가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 TV광고, 소비촉진 행사 등...소비활성화 전략 구상

LOTTE Mart

김환웅 롯데마트 축산CMD



“축산물 전반의 판매가 위축되고 있지만 한우 자체만의 소비는 크게 침체된 것은 아니다. 할인판매 행사 등을 지속해 온 결과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부위별 선호도에 따라 특정 부위의 소비가 늘거나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프로모션 행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우소비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는데 이를 농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농가에 대한 지원이 늘려야 소비홍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판매증진 행사와 연계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TV,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킴과 동

시에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농가, 농장이나 가공공장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우 소비가 계절에 따라 선호부위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 판매를 균등하게 이끌 수 있는 부위별 맞춤 소비촉진 행사가 요구된다. 이는 계절별 홍보와도 연계돼 성수기, 비수기 구분을 없앨 수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테마별 소비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한우협회나 한우자조금과의 연계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실제 명절 선물세트를 한우자조금과 함께 기획한 결과 소비자 반응이 좋았으며 이는 한우에 대한 이미지 쇄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물수입 중단...정부차원 부산물 처리대책 시급 빠른 추석대비...생산자단체 사전 분산·계획출하

농협 하나로클럽

김찬규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 축산팀장



“올해 한우 소비 확대를 위해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체대로 된 부위를 제값에 판매’ 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더불어 7~9월은 휴가·피서철로 성수기라 볼 수 있다. 이에 이달부터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한우 소비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올 한해 한우가격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오죽하면 축산농가가 부산물 걱정으로 도축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7~9월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하기만 해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차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부산물 처리 대책이 나와야 하며, 부

산물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올해 추석이 9월 19일로 평년보다 빠르다. 이에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홍수출하가 예상돼 한우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사전에 분산·계획출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한우는 ‘목적구매’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충동구매가 아닌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한우를 사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행사가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할인행사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다. 보다 다양한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세워 소비자를 공략해야 한다.”

배합사료, TMR사료 공동구매 유통마진 줄이면 답이 보인다

1*등급을 받아도 적자인 소값,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소값과는 달리 사료값은 매일 오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3조원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 구매자금을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정작 체감할 수 있는 농가는 드물다. 한우 생산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사료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사료비를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주시지부, 사료부터 출하까지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운영 생산비 절감 도모

“대규모 농가는 사료를 대량구매하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사료업체가 가격을 제시하는데로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협회차원에서 모색하고자 사료공동구매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무찬 전국한우협회 영주시지부장

사료공동구매로 판매장려금 지원받아

전국한우협회 영주시지부 송무찬 지부장은 한우 농가가 처해있는 가장 큰 문제로 사료비를 손꼽았다. 이에 영주시지부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06년부터 공동구매사업을 진행해 매해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해왔다.

첫발을 내딛은 것은 삼양사와의 배합사료 공동구매사업으로써 2~300농가가 함께 최대 1,000톤까지 구매했다. 일반적인 사료유통구조 상 사료가 공장에서 생산되어 농가의 앞마당까지 도착하기까지 높은 금액의 유통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상쇄하고자 영주시지부에서 대량으로 사료를 구매해 유통비

다양한 사업운영으로 생산비 절감 도모

공동출하로 안정적인 출하방법 모색



용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사료회사로부터 사료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작년부터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배합사료 업체간의 경쟁입찰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료품질은 높아지고, 사료판매장려금은 더 증액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TMR사료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어 회원농가가 더욱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내 사료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공동구매로 인해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저장능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축해온 사료판매장려금 등을 활용해 지부에서 창고를 구매, 저장능력을 확보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주시지부는 생균제공장 출자와 조사료 공동구매 대행, 육질초음파 진단을 비롯해 미네랄블럭, 축산기자재 구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출하로 안정적인 출하방법 모색

한우의 차상계류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방지, 안정적인 출하를 위해 공판장의 출하예약제가 실시됐지만 그 이면에는 출하 예약제에 따른 축협과의 갈등



등 등 많은 문제가 돌출됐다.

지역내 농협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하배정을 받지 못해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대출 시 이자율을 차등하는 등 농가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농가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송 지부장은 각 도축장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해와 부경공판장에서 출하배정량을 할당받았고, 각각 일주일에 15마리씩 출하하도록 제휴를 맺었다.

송 지부장은 “항상 한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실행한다. 사료비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생산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한우협회 등이 다양하게 모색한다”고 말했다. ㉞

울산시지회 TMR사료공장 운영 지자체와 협력 사료비 지원도

“한우산업은 생산과잉, 소비침체와 더불어 사료비 부담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정부 뿐 아니라 농가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김두경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은 날로 사료비 부담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나 절감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침체로 농가에서 느끼는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 김두경 전국한우협회 울산시지부장

저렴한 사료 생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이에 따라 울산시지회는 이러한 한우농가의 고충을 덜고자 TMR사료공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시와 협력해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한우회영농조합 TMR사료공장에서는 월 700톤의 TMR사료와 500톤의 우성사료를 울산시지회 소속 250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물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TMR사료의 경우 타사 제품보다 포대당 1,500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TMR사료의 경우 울산시뿐 아니라 울주군과도 협력해 포대당 800원 연간 약 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의 경우 톨당 2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울주군 전체 예산의 15%를 한우지원에 투여할 만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TMR 사료공장과 멀리 떨어진 울산시 남부지부

와 북구지부를 제외하고 두 북지부, 서부지부 500여 회원농가 가운데 반이상이 이곳에서 사료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김 지회장은 “2009년 사료공장 설립 당시 이 지역에 TMR사료공장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유통을 시켜 농가 스스로 협회차원에서 TMR사료공장을 갖추게 됐다”며 “농가에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협회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급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해서 미경산우 브랜드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지회장은 “내물이 허약하면 질병에 대항할 수 없듯이 한우산업도 농가가 스스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TMR사료공급, 미경산우 브랜드화사업, 조사료 생산비지원 등도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㉔



축 산 관 측

6~8월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도축마리수 전년대비 증가, 송아지 가격 다소 회복

3월 기준 사육마리수는 296만6,000마리, 가임암소는 120만마리로 각각 전년대비 3%, 2.6% 감소했다. 1~5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9%, 평년대비 20.6% 감소한 58만9,000스트로웠다. 1~5월 한우 도축마리수는 전년대비 19.4% 증가한 39만1,000마리로 암소는 전년대비 41.5% 증가한 21만5,000마리, 거세우는 12.2% 증가한 16만4,000마리다.

1~5월 쇠고기 수입량(검역기준)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0만6,000톤으로 FTA 관세 인하 효과로 1월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대비 35.8% 증가했으며, 이에 수입재고는 전년대비 8.8% 증가한 4만7,884톤(4월 기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이다.

송아지 가격의 경우 작년 12월대비 6월 송아지 가격은 약 20만원 상승하여 수송아지 175만원, 암송아지는 1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1~6월 한우자육 평균가격(kg)은 전년(1만3,442원)보다 10.3% 하락해 1만2,051원(600kg 환산기준 432만원)을 기록했다.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1만4,181원, 600kg 환산기준 509만원)보다 13.9% 하락해 1만2,209원(600kg 환산기준 439만원)이었다. ☺

◆ 비육우 마리당 소득 추정 (6월 도매가격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도매가격(원/kg)	가격(A)(600kg)	2012년 경영비(B)(600kg)	소득(A-B)
1 ⁺⁺	16,767	6,026	4,630	1,396
1 ⁺	14,220	5,111		480
1	12,204	4,386		-244
2	10,331	3,713		-917
3	7,617	2,738		-1892

◆ 한우 가격 및 출하동향(6월 7일 기준) - 국내 소 도축/출하 현황 및 쇠고기 가격

(단위 : 원/kg)

구 분	평년 ('08~'12)	2012년		2013년		대비	
		5월(A)	6월(B)	5월(C)	6월(D)	C/A	D/B
도축마리수(두) (일평균도축마리수)	654,734 (2,480)	61,009 (2,773)	57,120 (3,006)	76,215 (3,464)	62,379 (3,283)	24.9 (24.9)	9.2 (9.2)
경매마리수(두) (일평균경매마리수)	246,000 (932)	27,731 (1,261)	27,573 (1,451)	39,565 (1,798)	32,548 (1,713)	42.7 (42.6)	18.0 (18.1)
전국평균 경락가격 (거세 1등급)	14,202 (14,818)	13,308 (14,734)	13,069 (14,716)	11,439 (11,757)	11,790 (12,204)	-14.0 (-20.2)	-9.8 (-17.1)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5,087	4,767	4,681	4,097	4,223	-14.1	-9.8
한우 불고기(1등급/kg)	33,287	31,290	31,972	30,530	29,808	-2.4	-6.8
한우 등심(1등급/kg)	64,477	55,400	57,031	59,750	59,475	7.9	4.3

» 일일 한우 가격 및 수급현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우홍보관→ 한우백과사전→ 한우생산통계 자료실→ 생산→ 1일 수급동향(상단)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우 사양관리

장선식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여름철엔 고온다습한 날씨와 잦은 비로 인해 가축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축사환경, 질병 등의 외부환경적 요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낮의 축사 내 온·습도 저하, 유해가스(암모니아)배출을 위하여 그늘막을 설치해 자연통풍을 최대화 하며 자연통풍이 부족할 시 송풍기를 설치·가동한다. 특히 갑작스런 호우에 대비하여 축사 주변, 사료포 등의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며, 쇠파리와 모기, 파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사 주변이나 퇴비장 주변의 물웅덩이와 잡초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뿌려 해충의 서식지를 없애야 한다.

비육우, 고온 스트레스 낮추는 사양관리에 신경 번식우, 소금 별도 급여...비타민A, D, E 등 보강

하절기 낮 최고기온이 대부분 25℃가 넘어가는 만큼 한우농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송아지와 비육우의 고온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사양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온도가 20℃이상으로 높아지면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비육우의 증체량이 떨어지며 기온이 32℃까지 올라가면 호흡수가 증가하고 체온도 상승하면서 체온저하를 위해 물 섭취량이 늘어난다.

특히 비육우는 30℃ 이상이 되면 생산 환경 임계온도에 이르러 발육이 정지하며, 특히 근내지방 형성이 왕성한 비육중기에 있는 소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비육우

소화이용성 높은 원료 사료 급여

고온기 비육우에 대한 사료급여요령은 비육중기부터 후기사이의 더위 스트레스 감소대책

이 절실한데,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가축은 반추위내 발효열에 의해 체온의 증가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므로 열사병에 걸리기 쉬우며 이에 따라 급격한 사료섭취량 감소와 체중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사료의 빠른 소화로 제 1위의 발효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소화이용성이 높은 원료로 제조된 사료를 급여하되, 비육말기의 소에게는 TDN함량이 74%이하의 사료를 급여한다.

사료섭취량을 높이기 위하여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7:3으로 조절하며, 비육후기의 소는 반추기능 유지를 위해 1kg 내외의 볏짚을 급여해야 한다.

신선한 사료의 급여를 위해 10일 이내 급여할 만



큼만 구입하되 사료조 청소를 자주 실시하고, 자동 사료 급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고온과 동시에 습기가 많으면 사료저장 사일로나 오거관 안에서 묻쳐지거나 부패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고온으로 인한 사료섭취량 저하에 대비하여 자가 배합사료의 경우, 기호성이 높은 당밀이나 우지의 첨가량을 높이고, 각 제품의 영양소 함량을 상향 조정하여 섭취량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방지한다.

사료는 되도록 새벽, 저녁 또는 밤에, 조사료는 주로 저녁에 급여하고, 조사료는 5~10cm 내외로 짧게 썰어 급여하며 육성기간은 되도록이면 벼짚보다는 질이 좋은 풀을 급여한다.

더운 시기에 반추가축용 코팅 비타민C 제제를 급여하면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사료섭취저하를 막아 주며 근내지방 향상에 유리하고, 육성기 제각은 비육후기에 운동을 제한하고 다툼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여줘 에너지 손실을 막아 증체 및 근내지방 축적을 촉진시키므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번식우 농후사료 비율 높이고 비타민·무기물 추가

번식우는 조섬유 함량이 높은 조사료를 많이 급여하면 체온상승과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고, 농후사료의 비율을 높이고 고온기에 더 많은 비타민과 무기물이 요구되므로 사료에 섞어 먹이거나 미네랄 블록 등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여름철의 염분 섭취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료 내 염분함량을 조절하는데 방목을 하거나 풀을 많이 급여하는 번식우는 소금을 별도로 급여해야하고, 고온 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해 비타민A, D, E 등을

첨가·보강하며, 산야초나 청초를 베어 먹일 경우 그늘에서 하루정도 해쳐 놓아 과도한 습기를 말린 다음 급여한다.

혹서기에 발정발견이 어려우므로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발정관찰을 하여 수정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온스트레스로 수태가 쉽지 않은 만큼 수정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지붕에 그늘막 설치·물 뿌리기도 효과적

송아지는 특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축사 환경관리와 깨끗하고 신선한 물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하며 변질된 사료를 먹거나 비를 맞으면 설사나 호흡기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지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빨리 수의사를 불러 치료하는 것이 좋다.

더위에 잘 견디는 인도소나 물소와 달리 추위에 잘 견디도록 진화한 한우는 더위에 더 취약하므로 폭염이 지속되면 특히 투광재를 사용한 우사의 경우 지붕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기온이 뜨거운 시간인 오후 2~4시경에 한 두 차례씩 우사 주위나 지붕에 물을 뿌려 주는 것이 우사내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달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노인 2만3,000명 혜택 더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일보 발췌]

이달부터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돼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2만3,000여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기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서비스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1등급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2·3등급은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1577-1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해 판정하게 된다. ☺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돼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주요 상태 및 요양인정 점수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95점
3등급(현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3~75점
3등급(변경)	경증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추가	51~75점

(자료 : 보건복지부)



애독자코너



소값이 떨어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소값 하락의 원인으로 공급과잉, 소비 침체 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암소를 브랜드화 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번도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를 000 암소라고 일컬으며, 이 암소들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전북한우농가들이 지난 6월 13일 김해축산물공판장에서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번도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를 무엇이라 할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6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우경훈(경기 김포시), 정연일(강원 양양군), 최승삼(충남 예산군),
정문재(전남 여수시), 김영호(전북 고창군), 김영분(충남 태안군)

한우맛집소개



오평한우마을

전화 : 054)973-9800

주소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251-1

정직과 청결을 무기로 저가정책을 펼쳐낸다. 이곳에서 한우를 길러 온 아홉명의 한우농가가 영농조합을 결성해 믿을 수 있는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오평한우마을'은 자신들이 애지중지 길러온 한우로 소비촉진을 위해 출발했다. 정직과 청결을 원칙으로 최상의 한우만을 제공하고 있는 이곳은 인근에 금오산도립공원과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15분 거리에 있어 한우 맛 삼매경에 빠진 뒤 산책삼아 둘러볼 곳도 있다. 1등급 거세우 꽃등심 600g에 4만원 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니 나머지 부위의 가격은 물어보나 마나인 셈. 특히 국거리리는 600g 1만5,000원 수준에 팔고 있으니 밀저도 본전이다.